

극단 **열린무대**  
제 3 회 정기공연

# 등소



# 막 · 을 · 올 · 리 · 며

처음부터 주어진 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작품 결정에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  
작품 속에서의 인물들의 비중,  
소설 '들소'가 가진 소재를 녹여내는 힘,  
주제 접근법과 서사극적 방법의 배치 문제,  
그리고 작가 이문열에 의해 소설이 나온 시대적 상황보다  
완화된 시대에 우화의 틀거리를 지니는 문제,  
예술관의 논의에서 인생관의 논의로 발전시키는 과정 등등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는 다가든 현안이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히 인간된 선명한 가치 추구쪽인데,  
한쪽에서 선택한 진실한 가치가  
다른 한쪽에서 배척으로 선택되어지는 현상은  
사는 방법, 삶의 실천면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려지게 되는 상황이었고  
걸러 내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정직한 선택의 문은 하나,  
그러나 그 하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최선의 하나로 살아나길 원했고  
선택의 총화로운 결과가  
관객과 성실하게 만나는 통로로서의 무대로 연결되길 바라며  
관객 또한 선택의 가치를 찾는 기쁨이 고루 누려지길  
바라면서 막을 올립니다.



연출 권 남 희

도움을 준 창복형, 작곡을 맡아준 은경씨, 함께 작업한 단원들과 후배들,  
그리고 격려해 준 윤아 아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 인물들 서로의 관계, 권력과 부가 발생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의 인물들의 선택의 차이를 갈등의 형태로 극화시키는데 두었다. 그리하여 이미 부와 권력이 발생하여 어떤 형태로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자유와 가치를 위해서는 어느쪽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인가의 물음을 관객들에게 던지고 함께 가치를 추구하는 몫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방향을 잡아 나갔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인간의 자유를 향하고자 조직적 힘에 맞서는 의지와 또한 측면에서 그러한 대결을 접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떠가는 인식의 문제를 부대껴사는 인간의 목소리로 담아 내고자 했으며, 서로 섞여 이끌리면서 단지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삶도 무리의 형태로써 형상화하려 했다.

이야기는 계곡의 소년 소녀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인물 서로가

만나고 나아가 관객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동굴 어귀쯤이 될까, 나무와 바위 사이로 넘나들면서 한차례 놀며 활쏘기, 열매 따기, 힘 기르기를 하는 속에 한 소년이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저 혼자 놀이에 몰두한다. 이때 계곡의 위대한 어머니가 등장하여 힘을 기를것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함께 모으면 장면은 곧 첫 성년식을 맞는 '들소 사냥' 장면으로 연결된다. 성년식의 의식 중 가장 중요한 '이름 얻기'도 이때 이루어진다. 심장을 찢른 붉은 노을, 안전지대에서 뿔을 누른 뱀눈, 맨 처음 발견한 큰 목소리, 소에게 창 한 번 못 던지고 등을 돌린 소에게 밟힌자, 이들이 서야 할 자리와 주어지는 꿈, 거기에서부터 갈등은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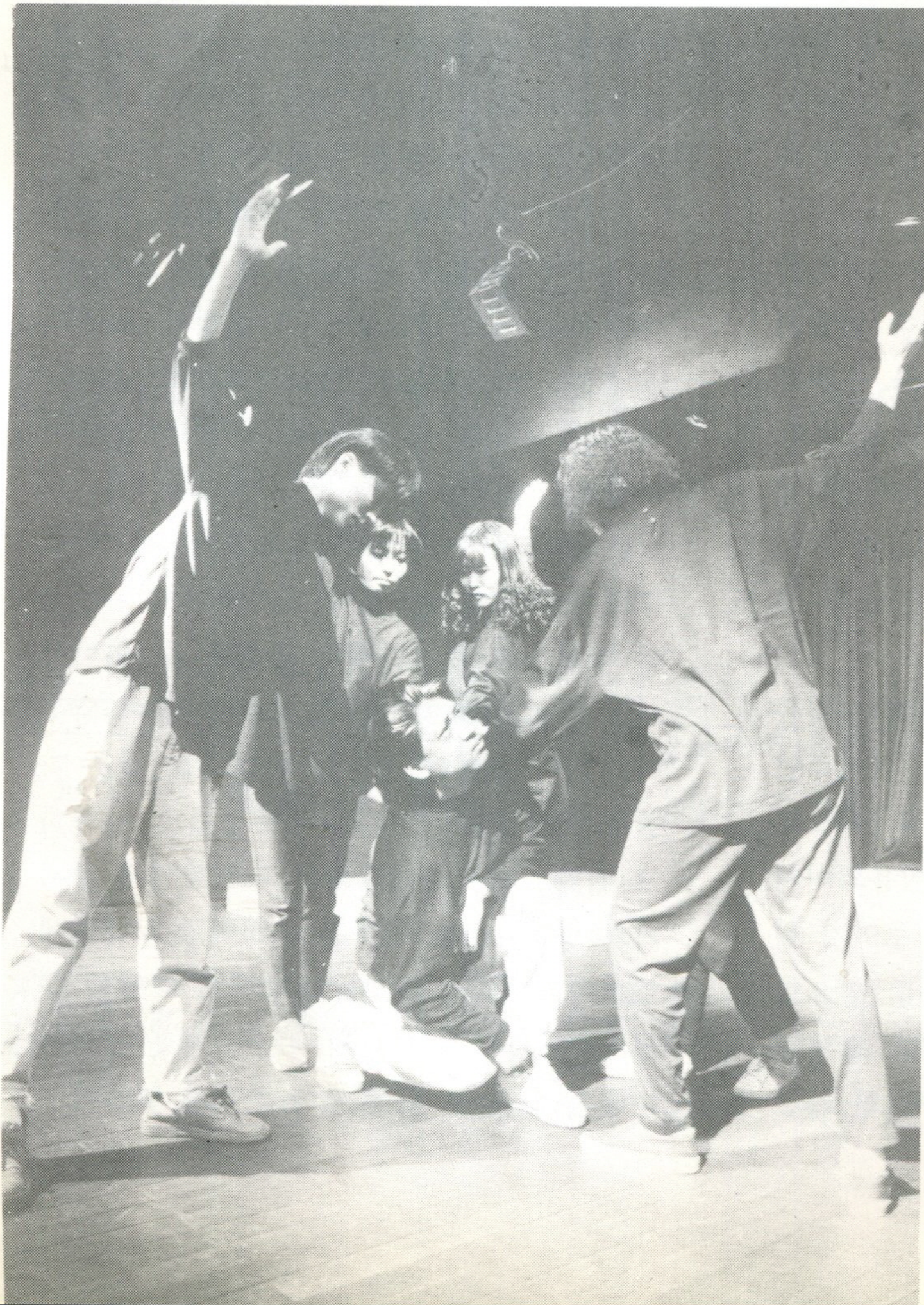
초원의 꽃과 뱀눈과의 밀회, 목격한 소에게 밟힌자의 분노와 다른 세계로 떠나려는 결심, 그러나…….<신비의 동굴>에서 생활하는 사제자에게 붉은 노을이 가져오는 소식은 계곡의 혈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길

한 변혁이었다. 일찍이 큰 목소리가 평원에서 보고 온 변혁-정치적 상하 구조의 발생, 권력 구조의 유지를 위한 재산의 사유제도 도입, 그리하여 한쪽에는 배불리 먹고도 남아도는 식량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상-이 계곡의 혈족 사이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큰 목소리의 결행은 뱀눈과 맞서게 되고 사람들은 어느쪽으로도 자신들의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 우선 눈 앞에 보이는 고기와 가죽이나, 아니면 예감할 수 없는 미래의 불행한 사태를 거부하는 몸짓이나, 이곳에서 우리들은 우리들 삶이 어느 순간에서건 맞닥뜨리게 되는 보편적 상황을 발견하게 되

고 선택의 가치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갖는 시간을 제공받게 된다.

하늘의 뜻을 전하는 주술적 기능에서 인간을 향한 노래 부르기로, 그림을 향한 그림 그리기로의 이행은 예술의 실용적 가치나, 예술 자체를 위한 존재의 의미나, 혹은 체제로의 편입이나 역행이나의 예술관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우화적 장치로 담은 것일 터이겠지만, 본 작품 '들소'에서는 폭넓게 해석하여 세상이나 인생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나타내려 했으며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속성과 그 속성에 대한 인간적 가치의 자세를 음미해 볼 계기로 작품은 구성되었다는 걸 덧붙인다.



**공연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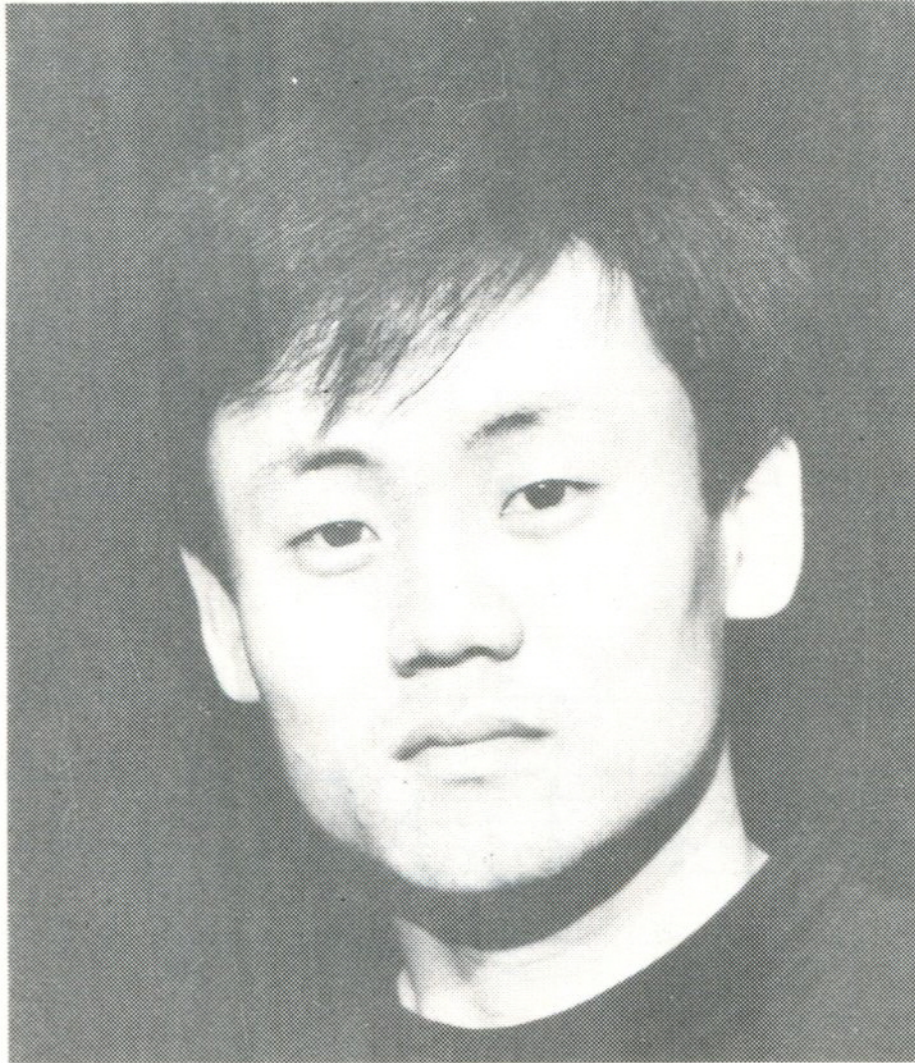
**흥국생명주식회사**

부장 박 선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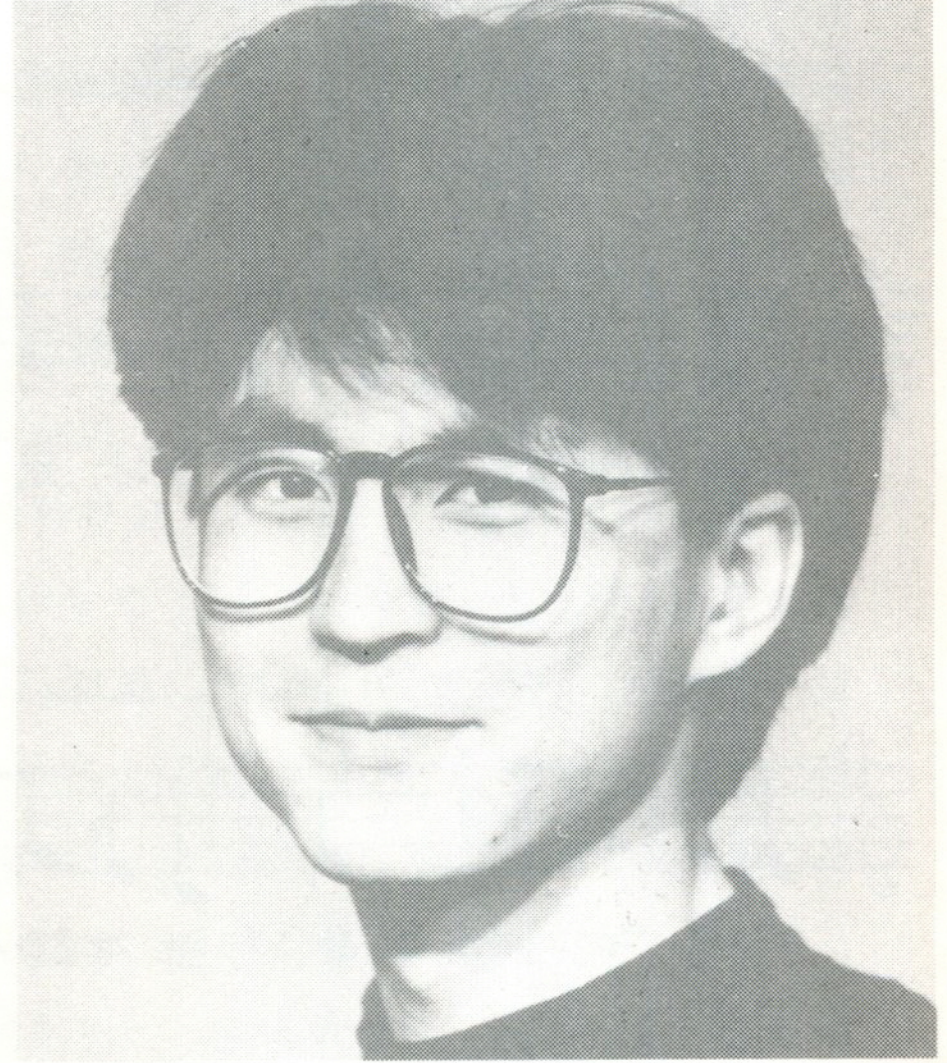
T. 803-2447

# 나를 무대에 서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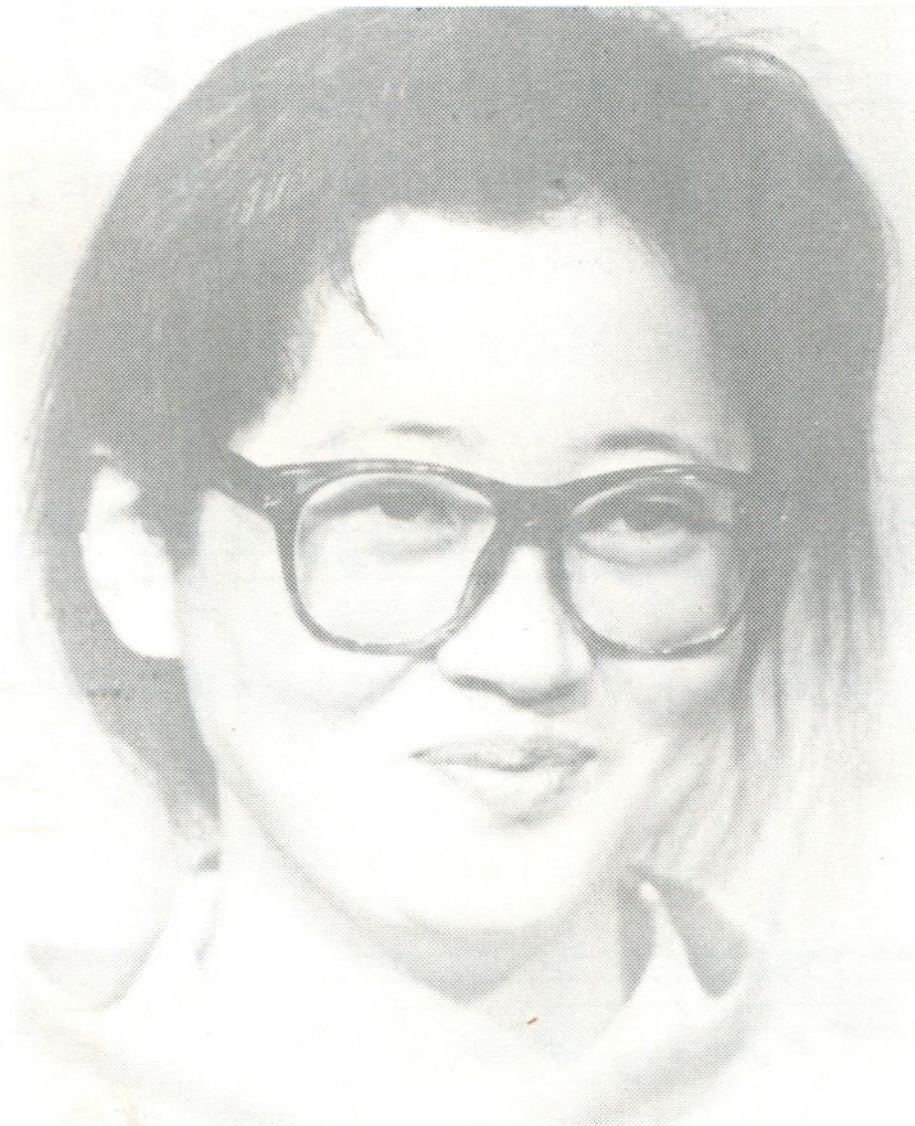
「좀체 형상이라곤 없어보이는 거무튀튀한 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특유의 끈적거림을 내세워 움직이려 한다.  
소리치고 싶은 때가 가끔 있지.  
안정된 생활의 리듬을 갖고 싶어 열망도 해 보지만  
그 고개마루에 다다르면  
눈은 또 저 멀리를 응시하곤 하지  
그래!  
너나 나나  
진실한 너를 발견하고 싶고  
진정한 나를 보여주고 싶을때가 있지.



• 뱀눈 / 신 중 철



• 소에게 밟힌자 / 김 병 진  
무리 5



• 큰 목소리 / 이 남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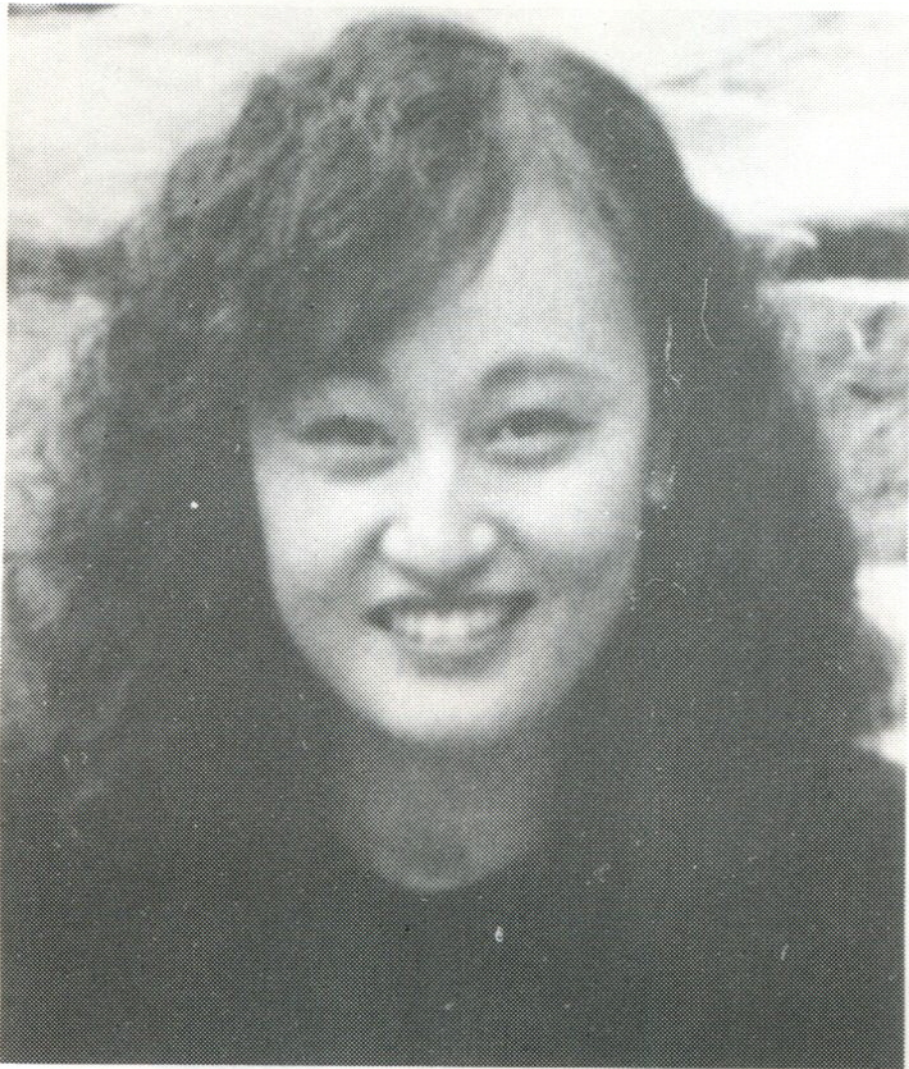
• 붉은 노을 / 최 성 우  
무리 4

# 하는 것은?

박 영 하

아마 그래서  
난 여길 택했을 꺼야  
사실  
배우라는 지칭이 아직은 낯설어.  
눈을 가리고 문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듣는 말일까?

- 영하야.  
몸이 와 그래 뻗뻗하노!  
그라고 녀 대사도 좀 들어주라-  
그리곤 까만 조각들이 너울너울 춤춘다.



• 위대한 어머니 / 이 행 경  
무리 3



• 초원의 꽃 / 원 윤 희  
무리 2



• 산나리 / 박 영 하  
무리 1



• 애기꾼 / 백 주 은

## 만든 사람들



• 기획 박미정



• 무대미술 최현주



• 조명 임성우



• 진행 최재훈

• 사진촬영 이희섭

흑백사진기획 · 실기 · 이론상담  
☎ (051) 552-5112, (0523) 385-8750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591번지

사진작업실





• 작곡 이 은 경

현 부산대 국악과 재학, 작곡전공



• 안무 황 지 현

90년 America dance festival 수료  
현 부산현대무용단 정단원

---

## 공 · 연 · 보

열린무대공연 1. '금강 1984' '90. 3. 2~3. 5 신동엽 시, 이여화 구성,  
이창복 연출 시민회관소극장에서 창단 공연함.

열린무대공연 2. '금강 1894', '90. 4. 30~5. 6 열린소극장 개관기념 특별  
공연함

열린무대공연 3.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90. 9. 20~10. 28 이창복·권남희 작  
이창복 연출로 열린소극장에서 제2회 정기공연함

열린무대공연 4.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90. 12. 11~12. 16 열린소극장에  
서 제1회 소극장 축제에 참가 공연함

열린무대공연 5. '들소' '91. 4. 11~4. 28 이문열작, 권남희 연출로 열린소  
극장에서 제3회 정기공연함.